여수시 명품 섬 조성으로 관광객 유혹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명품섬 조성 계획 보니
① 금오도 비렁길 출렁다리 6월 완공
②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 9월 완공
③ 하화도~장구도 출렁다리 가설
④ 화정면 개도 생태탐방로
⑤ 백야도 별자리 테마공원 조성

금오도 비렁길 3코스 매봉전망대

지속적인 관광객 1000만 시대 개막을 선언한 여수시가 특색있는 365개 섬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비렁길' 등 명품 섬 관광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오도의 해안절경을 아찔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금오도 비렁길 출렁다리'를 다음달 완공한다.

또 광양만권과 여수 국가산단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묘도 봉화산 전망공원'이 9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여자만의 뛰어난 생태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소라면 현천리 일원에 수변시설과 탐방로, '꽃섬 길'로 유명한 하화도와 장구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가설하는 등 주변 경관과 연계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시는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화정면 개도의 생태탐방로 조성을 위해 7억원을 들여 올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전남도의 공모사업에 '가족의 섬 백야도 별자리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여자만 '2014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 등이 선정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여수를 찾는 방문객에게 보다 나은 볼거리와 편의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담양군 '자연밥상 꾸러미 상품화 시범사업' 추진

고객 요구 맞춰 소량 다품목
용면 월계 영농조합법인 선정

담양군이 로컬푸드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소량 다품목으로 구성해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는 '자연밥상 꾸러미 상품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자연밥상 꾸러미 상품화 시범사업' 운영자는 경지면적이 작은 소규모 농가로 조직된 용면 월계 영농조합법인(대표 정효정)이 선정됐다.

월계 영농조합법인은 사업추진을 위해 작업장 설치와 시설기반 조성, 상표 및 포장재 개발,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재 연중생산 품목으로 선택된 고사리 외 30종을 파종하고, 상표 '담양의 아침'(사진)을 등록 중에 있다. 오는 10월께에는 꾸러미 상품 홍보마케팅을 위한 소비자 초청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월계 영농조합법인은 꾸러미 상품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경남 함안군과 나주시, 영광군의 '언니네 텃밭'과 지역농협을 방문해 선진기술을 익혀 연중 생산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기본품목 4종, 상시품목 60~70종으로 구성해 연간 300~500 꾸러미를 배송할 방침이다.

정효정 대표는 "자연밥상 꾸러미 상품이 성공해 인근 도시 소비자와의 직거래 시스템이 구축돼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함께 농가소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jg@

해남군, 주민제안 접수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

군 홈페이지·우편·팩스 등

해남군은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키 위해 6월 말까지 주민제안을 접수한다.

제안 대상은 행사성 경비와 특정단체 지원을 제외한 지역현안 사업 ▲주민 숙원사업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주민 안전과 문화·복지 등 군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참여방법은 군 홈페이지(www.haenam.go.kr) 정부 3.0 정보공개→재정운영공개→예산편성 제안방에 올리거나, 우편(해남군 군청길 4 해남군청 기획홍보실), 팩스(061-530-5574)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사업부서의 사전검토와 해남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오는 11월 군의회에 제출,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해남군은 지난해 주민제안 사업 68건(4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전남도, 일손 부족 농촌 지원 인력 알선창구 개설

내달 21일까지 농촌돕기 기간
공직자·군인 등 농사 지원 투입

전남도는 다음달 21일까지 한 달 동안을 농촌일손돕기 중점 기간으로 설정, 각급 기관의 공직자, 군인 등이 나서 일손이 집중되는 양파·마늘 수확과 과일 열매 솎기, 봉지 씌우기 작업 등을 지원한다.

도는 내실있는 일손 돕기를 위해 도 본청과 22개 시·군,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에 농촌 일손 돕기 알선창구를 개설하고, 도 누리집 농촌 일손 돕기 신청방을 구축해 일손을 돕고자 하는 단체와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연결함으로써 필요한 인력이 지원되도록 했다.

또 시·군과 농협 등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영농 도우미와 농가 도우미 사업 등도 농촌 일손돕기와 연계해 추진하고, 고령자·노약자·부녀자 가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높이는 등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강진 작천면 농가에서 도 농림식품국 직원 40여명의 마늘 수확 지원을 시작으로, 도 본청 직원 1300여명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선다.

전남도교육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23곳, 지역 대학 12곳 등에도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상 마을 및 농가와 자매결연을 추진, 농촌 현장 이해와 농산물 사주기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북 소식

"볏짚, 철새에게 양보하세요"

고창군-동림호 인근 농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

고창군이 성내면 동림 저수지를 찾는 철새 보호에 발벗고 나섰다.

고창군은 27일 동림저수지 인근 농민들과 겨울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처음 시도되는 이번 사업은 생태계 우수지역인 동림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으로 지정된 동림 저수지는 해마다 멸종위기종인 가창오리를 비롯해 큰기러기, 큰고니, 청둥오리 등 철새가 월동하는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다. 지난 겨울에는 이곳 철새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를 퍼뜨린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군과 농민들은 이번 계약을 통해 올해 추수철부터 저수지 1㎞ 이내의 농경지에 있는 볏짚을 거둬들이지 않고 남겨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처를 주기로 했다. 군은 그 대가로 농민에게 1㎡의 농경지마다 45원을 준다.

군은 사업공고 후, 7월 말까지 희망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농업인이 환경위생사업소에 관련 서류(청약서·농지원부 등)를 제출하면, 군은 대상농지에 대한 현지조사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9월에는 군수와 경작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비율의 선금을 지급하며, 최종 계약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으로 군은 저수지 주변 농경지에 보리를 재배하거나 벼를 수확하지 않는 방식으로 철새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동림 저수지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군 안에서도 가장 핵심지역"이라며 "더 많은 철새가 찾아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주민이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계약 유형은 사업대상 농경지에 지역주민이 보리를 계약 경작하는 경작관리계약과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한 벼 미수확 존치, 볏짚존치 등 보호활동 계약이 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남원 춘향제 다음달 12일 개최

17일까지 광한루 일원에서
춘향 선발·용마놀이 등 진행

'세월호' 참사로 잠정 연기되었던 제84회 춘향제가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남원시 광한루 일원에서 열린다.

'사랑이야기! 남원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춘향제는 춘향제 본연의 전통문화예술축제 강화, 시민참여형 축제 추진, 축제 매력 강화 등에 무게를 두고 4개 분야 26개 종목을 선보인다.

시는 춘향제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됨에 따라 축제성격을 예술공연 축제로 발전시켜 '오페라 갈라쇼', '창극 춘향전', '춘향가 연창' 등의 공연예술도 준비했다.

12일에는 춘향제의 대표적인 행사인 '춘향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남원 시립국악단·지역 국악인 등 80여명이 준비한 주제공연, 안숙선 제전위원장이 참여하는 개막식 공연이 펼쳐진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연출하는 길놀이와 12년 만에 다시 재현하는 '용마놀이'가 춘향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한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K-뷰티 콘테스트, 춘향시대 속으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춘향제전위원회 강정주 담당은 "'세월호' 참사로 아직도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지만 그동안 춘향제를 다양하게 준비해온 만큼 애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